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 세상에 머물며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게으름으로 말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마땅히 가야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 마음 속에 소중히 받고 허락된 이 시간들을 헛되이 하나님 앞에 쓰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또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선생님들 있습니다.

마땅히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항상 허락해주시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배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본문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3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아람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기원전 약 13세기 경에 히타이트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쿠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때로는 적대적으로 때로는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때 있었던 과거의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상업에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동방지역의 많은 무역을 앞장서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아람어로 아람단어로 기록한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 상당히 널리 알려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라는 결점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까지 오를만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문둥병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름없는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작은 계집아이 한 소녀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을 통해서 또한 그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않습니다만은 성경 역사 속에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한 소녀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사를 직접 아람에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람땅 포로된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어떻게해서 아람까지 끌려갔을까?

아마도 부모와의 생이별이었는지 사별이었는지 그것은 기록되었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부모님까지 죽고 가족 친지 마을 고을 사람들 모두 죽고 본인만 포로로 끌려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보잘 것 없는 계집종이었습니다.

이름없는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3절에 보면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마음에 있는 것을 연민처럼 사랑처럼 표현한 대목입니다.

어떻게보면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에는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 생각해보시겠어요?

내가 만약 그 작은 어린 소녀였다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주모 앞에 나아가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까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해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수, 대적, 내가 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필요가 어디있을까?

혹시나 또 전했다가 안 되면 또 어떡할까?

나서지 말자 중간만 가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이 3절 말씀이죠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확신에 찬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고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간다면 분명히 고쳐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한 번 해보십시오 라는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건 분명한 전도입니다.

이건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반드시 고쳐집니다.

그 선지자 앞에만 선다면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 작은 소녀하고 대비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찌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 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여기서 이 패역한 국가 이스라엘의 왕 제 9대 왕 여호람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아만이 자신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그 친서를 보는순간 너무나 당황하는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관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빌미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려고한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이 왕의 머릿속에는 엘리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명확한 지식이 없는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 아이는 단박에 떠올랐던 이름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패역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가들은 딱 한 사람의 이름 엘리사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들은 엘리사를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지자로부터 멀어져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오죽하면 엘리사가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들 속에 있지않냐 라는 얘기를 역으로 쫓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명확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대비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영적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없는 무명의 작은 소녀를 사용하셔서 소리지르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이름없는 작은 소녀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소녀가 아닐찌라도 무생명체인 돌들을 일어나게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땅히 해야될 말이 선포되지 않을 때 마땅히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선지자가 기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생명체 돌들이라도 일으켜세워서 하나님을 선포할 거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40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것을 기뻐하고 마땅히 환영하며 찬송을 올려야 할찌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소리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그리스도인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해야될 증명해야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분명치 않게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이름없는 것들 그리고 생명도 아닌 무생명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땅히 좋은 소식있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

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그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 하늘이 그리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씩어질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탈 것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따금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많은 세상 한계많은 육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요 일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무들로 책상들로 소리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작은 계집아이 이름없는 그 무명의 소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교회가운데에서 나같이 못 배운 사람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어요

저는 못났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가장 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배웠을찌라도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귀 톱빠는 어느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손에 쥐어졌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은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못된 선지자를 꾸짖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렵돈은 역사 이레로 가장 큰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일찌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면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겁니다

흑자는 이야기합니다

나같은거 쓰시더라도 작게 쓰시겠지 그제 고만고만 작게 쓰실거야 너의 믿음대로 될찌어다

믿음대로 그렇게 될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크게 쓰실 겁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운데 나를 몰라줄찌언정 하나님 저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지만 그것을 두 달란트 남기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기생라함을 쓰셨습니다

보잘 것없는 이방여자 룯을 쓰셨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아주 여녀린 소녀 마리아를 쓰셨던겁니다.

그걸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는 아주 보잘 것 없고 작아서 나같은 것 거들떠 보기라도 할까 하나님은 거들떠 보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합니다.

이 소녀가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되요

나아만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문둥병자요 영혼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셨던거예요

이 계집아이는 결코 중얼거리지 않았습시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드시 나을겁니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담대히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예요

지혜롭게 전한다고 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지혜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전해야지 그 지혜롭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이 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해야됩니다

담대하게 전했더니 거부하고 돌아서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야될 과정이에요

그 당사자가 걸을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지혜로움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중얼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계집아이는 담대하게 선언했던겁니다.

중얼중얼 자기 혼자 입중얼거리지 않았습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해야될 일입니다.

이 어린소녀처럼 무엇하나 솔직히 내놓을 것있겠습니까?

작은 계집아이 하나 종살이 하는 노예종 그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그러나 그 아이는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명확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 한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겁니다. 고칠겁니다. 분명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로써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담대하게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이 비밀을 선언해야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 소녀가 붙잡혀온 포로 계집종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야됩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의 말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왕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표현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집종의 얘기를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계집종의 생활이 삶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할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맡겨진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계집종 아이였다면 어찌 그 말을 거들떠보거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맞을 겁니다.

이 진실한 삶이 없다면 결코 그 말이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저 입이나 나불대고 입으로만 주인들을 섬기는 아이였다면 분명히 그것은 한계를 가졌고 결코 진실로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가 참으로 멋진 전도가 될 겁니다.

이따금씩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다보면 특히 구원간증을 듣다보면 자기 주변의 자기를 전도했던 형제 자매들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진실된 삶을 보고 자기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놀려대도 조롱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미 마음 자체가 움직였고 표현은 내가 오늘날 들어준다고 표현했지만 이미 마음에서는 듣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진정 멋진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주인 그 문둥병자를 사랑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입에는 주저리주저리 읊어나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은 따졌어요

꼬부라진 여자를 폼을 때 그들은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꼬부라진 여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병어리된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자된 사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얹어댄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선언하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소중한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요나서에 참으로 그 귀한 말씀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야 너는 이 박넙쿨이 그렇게도 소중한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넙쿨, 니가 배양도 안 하는 이 박넙쿨이 그리도 소중한냐?

나는 사람이 소중하다

이 큰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것이 어찌 가하지 아니하나

나는 사람이 소중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비록 적군 적국의 국방부 장관, 군대장관이라는 원수에 지나지 않을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 앞에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을텐데 자기를 잡아왔던 적국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집아이는 얘기한 거예요

소녀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계집아이라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아마 하늘에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소녀 얼마나 참 귀하게 자기 일을 했을까 아마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사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집아이도 분명히 복음 전도의 하나의 방편으로 쓰임을 받은걸 보니까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모르는 일이지만 그때 이름 한 번만 물어볼랍니다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보잘 것 없지만 작은 것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봉사 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봉사죠 내 앞에 앉아있는 1학년 코흘리개 어찌 보면 참 작게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할 겁니다

이번에는 나아만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삶까지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신앙적으로 철저히 떨어져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둥병자였으나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있지 않고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라고 결론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 앞에서 자신의 국가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문둥병자예요.

그 어떤 아무리 큰 위업을 이룬 자라고 할찌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문둥병자 죄인입니다.

죄인 나아만이 치료를 받아야되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지자 앞에 갈 때는 실수들을 저지르죠 5절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분명히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나님은 전달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첫 번째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로 아는 영적 무지입니다.

모른 겁니다.

모른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돈으로 살려고 문둥병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을 은 금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려고 치료의 대가로 여러분 은혜가 대가로 지불되는 겁니까?

대단한 착각이요 대단한 영적무지입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곳을 잘못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야 될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간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말씀대로 가야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됩니다.

이런 영적무지를 통해서 잘못된 결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난다음에 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갈 때 또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9절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말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아올 때 죄인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예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온겁니다.

장관의 신분으로 나아온 것이지 치료받아야될 죄인으로 나아온게 아니예요

그러니 분이 나는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않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음, 착각입니다

죄인이 깨끗함을 얻는거예요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군대장관인데 아마도 이스라엘과 군사적 관계에서 우위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아람이 그러니까 곧바로 친서 보내고 하니 왕이 바로 옷을 찢으면서 당황해 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렸을겁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던게 틀림이 없습니다.

군사적 우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넘어와서 한낱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큰일날뻔했어요

나아만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잖습니까

11절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인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단어 하나로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 번째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뿐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 재앙이라는 책임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좇았음이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살려고요?

세상은 생각대로 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은 특별히 더 그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LG유플러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세상은 생각대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 나아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허망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sk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망합니다.

세상 끝날에 망하겠지요

고발하지 마시고 또 sk한테

분명히 망해요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이 말씀대로 바뀌었을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1절에 내 생각에는 14절에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이 말씀대로 바뀌었을 때 구원이 되었습니다.

생각대로에서 말씀대로 바뀌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되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겁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매뉴얼 삶의 지침서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되요

말씀대로 하다보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깊어지게 되어있어요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보면 더 순종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써야되요

발버둥쳐야됩니다

오늘 안 됐을찌라도 내일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써야되는겁니다.

그랬을 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린 아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굴복하는 삶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선언해야됩니다

자꾸 훈련시켜야되요

어릴때부터 아비는 어릴 때부터 놀지 않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그 아비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 어릴 때부터니이다”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미칠 것들을 온통 널려놨습니다.

연예인에 미치고 텔레비전에 미치고 노래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어린 시절부터 미치게 해요

그것이 전부인양 우러러보고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미치게 해야됩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말씀에 미치게 해야되요 말씀에 취하게 해야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린시절부터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연습 아마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사명으로 가져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져야합니다

성경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되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되어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 들을찌어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그 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아주 높은 고위 장관이었다는 것을 알게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과 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응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되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보면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되는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앞질러서 빨리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말을 주목해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빨리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여러분 결말을 봐보세요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빨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뒤에 뒤쳐져 있어요

말씀대로 좇는 사람이 처음에는 적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다보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줄어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되요

예레미야 44장 28절 29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너희들 말이 성립되었는지 한 번 보자고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23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장정만해도 60만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이제라도 거두십시오

그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21세기에 그 분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노트에 믿음이 적은자들아 이렇게 적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내 믿음은 참 적구나 참 보잘
것없고 부끄럽구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됩니다.

머릿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된다는 것이 뱅뱅뱅뱅 도는데 실제 삶은 말씀
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신앙이 안
되는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안되는겁니다.

설마 될까? 정말 될까?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
도를 올려야될지 몰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참으
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생각해야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
니하였느냐 하신대]

내 말이 주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는 말씀대로고 나는 나대로예요

말씀대로 해야되요

나아만이 말씀대로 했을 때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을 칭찬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봐야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신겁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 처음으로 하실 때 그 사역의 초기때 하신 말씀입니다.

고향 땅에서 말씀을 퍼서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을 그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나아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문둥이가 참 많았었다.

그러나 그때 이방사람 나아만 그 한 사람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끗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가 깨끗해졌던 자 그 나아만 너희들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너희도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을 거라는거예요

그때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너희들도 만약에 나아만처럼 나아오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에 잠구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깨끗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아야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결론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나아만이 깨끗해진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있게하기 위해서 이름없는 계집아이 그 아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그 작은 계집아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될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천한 땅 찾아오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해주셨습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이름없는 계집아이 하나 그 아이 하나의 전도로 군대 장관 나아만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로 입을 열어 담대히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르쳐서 참으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좇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좇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의 중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